



즉시 배포용: 2023년 4월 1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에서 약물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발표

**주 정부, 현재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5년 공급량인 미소프로스톨
150,000개를 비축할 예정**

주지사, 약물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호법에 대해 입법부와 협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주정부가 낙태약 미소프로스톨을 비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보건부는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5년 공급량인 150,000개를 비축하기 위해 미소프로스톨을 즉시 구매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에 반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Roe* 판결을 뒤집는 데 그치지 않고 약물 낙태와 피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생식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은 항상 낙태 관리를 위한 안전한 항구가 될 것이며, 저는 우리 주에서 낙태 접근을 보호하고 생식 자치권을 지키는데 국가를 계속 이끌기 위해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3,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에 기반하여 지난해 낙태 서비스 제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낙태 치료제 미페프리스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주정부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른 치료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낙태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현재 미소프로스톨이 낙태 치료제로 규정될 때 민간 보험사들이 미소프로스톨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미소프로스톨을 처방함으로써 인해 의료 과실 보장이 증가하거나 보장 범위를 잃는 공급자가 없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입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낙태 약물을 비축하는 것 외에도 2024 회계연도 행정 예산의 일환으로 낙태 관리 접근권을 보호하고 낙태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보험 환급률 증가

-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2,500만 달러의 지원 제공
- 약사들이 피임약을 처방하도록 허용
-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구현 및
- SUNY와 CUNY 캠퍼스의 낙태 접근 확대

Hochul 주지사는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Dobbs*에 대한 판결을 내린 이래, 수백만 명의 여성들로부터 생식권을 박탈한 후, 낙태 치료를 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하는 주장을 주도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낙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3,5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입법부와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6가지 새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